

전북 발전의 중심은 '관광'

송하진 도지사, 7일 순창 슬로슬로발효마을축제 찾아 '힘' 보텔 계획

전북도가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전북도 시골마을 작은축제를 선정·육성하고 있는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작은 축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관광을 전북도 발전의 한 키워드로 삼고 있는 송지사는 지난 4월 이후 간부회의 등 실·국장 회의에서 자주 '작은 축제'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내비쳐왔다.

도백이 애정을 가지고 바라보는 전북도 시골마을 작은축제는 마을 및 공동체를 주관하는 규모가 작은 축제로 송지사는 이런 작은 축제 육성을 통해 단절돼가는 전통을 계승하고, 지역적 특색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 다양성을 높여겠다는 복안이다. 전북도 시골마을 작은축제는 6월 3일 현재 ▲진안고원 고로쇠 축제 ▲군산 평당보리축제 ▲김제 광활햇감자 축제 ▲고창 하진 비지락 오감만족 페스티벌 ▲완주프리프로즈축제 ▲부안유유향 뽕축제 등 6개 축제가 완료되었으며, 앞으로 12개의 축제가 더 남아있다.

선정된 시골마을 작은축제의 약80%가 개최된 시점에서, 송지사는 오는 7일 열리는 '제1회 섬진강 슬로슬로발효마을축제' 장을 방문할 계획이다.

작은축제를 주관하는 시골의 공동체, 마을주민 등을 만나 노고를 격려하고 힘을 실어줄 방침이다.

송지사가 방문예정인 '제1회 섬진강

슬로슬로 발효마을 축제'는 섬진강이라는 빼어난 자연환경 속에서 '시원한 강물과 숲이 만든 적성'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적성슬로공동체(위원장 최훈) 주관으로 '해설사와 함께하는 요강비위 산책', '용굴산 치유의 숲 마음치유 체험', '700년 야생차 숲 탐방', '자연꽃곶이', '발효식품(식초, 수제맥주) 체험' 등을 운영한다.

전북도 관광총괄과 관계자는 "전북도는 그간 시군 대표축제 중심으로 축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집중해왔다"며 "올해에는 특색 있는 작은축제의 지원·육성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다양한 문화가 꽃피울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장영달 우석대 총장, 현충탑 참배
우석대학교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4일 국립임실호국원을 방문해 호국영령들 넋을 기리기 위한 현충탑 참배를 하고 있다. (사진=우석대 제공)

소상공인의 롤 모델 '전북천년명가' 5곳 탄생

도, 홍보·마케팅·자금지원 등 다양한 정책수단 연계 지원

전북도가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전북천년명가 5곳'이 탄생했다.

'전북천년명가'는 30년 이상 한 길 경력을 하고 있거나 가업을 승계한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하여, 홍보·마케팅·자금지원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연계 지원해 100년 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전주 특유의 비빔밥을 한결같이 유지하고 있는 삼미당(전주, 한식), ▲묘즘은 많이 없어진 수제도장을 직접 제작하는 일도당인쇄(군산, 도장), ▲추억이 가득 담긴 오래된 가전제품 수리, 판매하는 남문소리사(전주, 전자제품), ▲아궁이에 나무로 불을 뿜 정도로 전통의 방식을 고집하는 이조점통식품(순창, 고추장제조), 용기와 분청으로 전통도자기의 맥을 이어가는 팔봉도자기(김제, 도자기제조) 등 스토리 있는 업체들이 영예를 안았다.

전북도와 전북도소상공인희망센터는

3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지계가족으로 가업을 승계한 소상공인 중 성장 가능성이 검증된 5개 업체를 '전북천년명가(全北千名家)'로 선정했다.

선정은 공모를 통해 서류심사, 현장 평가를 통과한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발표평가와 불시에 방문 평가하는 '합행심사' 등 총 4차례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평판도 등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선정했다.

선정된 업체에게는 3년 동안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의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정책수단을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일괄 지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또한 전북천년명가 인증현판 제공을 통해 신뢰도 인지도를 높이고, 경영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2천만원의 지원하고, 전문 멘토링 지도, 특례보증, 프랜차이즈와 지원 등 특별한 지원도 받게 된다.

특히 지상파TV에 '천년명가 프로그램'을 편성해 경영스토리, 인터뷰 등 업체 홍보 영상을 송출하고, 유튜브 영상도 제작하여 업로드하는 등 파격적인 마케팅 지원도 받게 된다.

향후 이들 업체에 대해서 3년마다 경영, 재무상태 등의 성과를 재평가하여 기준 미달시 지정을 취소하는 등 엄격한 사후관리를 통해 전북 대표주자로 육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업체만의 노하우와 경영개선 경험 등을 후배들에게 전수할 수 있도록 멘토링의 역할을 부여하여 성공모델을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전북도는 선정된 업체에게는 6월 중순에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며, 하반기에 5개 업체를 추가로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김미정 전북도 일자리정책관은 "이번 천년명가로 선정된 가게들이 천년 이상 이어 나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란다"며 "자긍심을 갖고 소상공인들의 본보기로 그 역할을 충분히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외교부 "헝가리 당국에 선장 구속 조사 필요 입장 전달"

외교부는 4일 디유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를 일으킨 바이킹 시인호의 선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헝가리 당국에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영식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가급적 선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사고원인 조사, 책임자 규명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기획관은 "현지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으로 나가 있는 법무협력관이 현지 검찰 당국과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고, 현지 검찰 당국에 우리의 입장을 다각적인 경로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 기획관은 그러면서 "결과는 최종적으로 헝가리 정부에서 판단할 것

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헝가리 법원은 지난 1일 바이킹 시인호의 선장 유리(에 대해 중과실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이날 보석을 허가했다.

현지 법원은 보석금 1500만 포린트(약 5900만원)를 보석 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헝가리 검찰은 조건부 보석을 허가한 법원의 결정에 항고했고, 법원은 이르면 5일 영장 항고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

이목희 "고용상황 긍정적 변화 전망... 정책 노력 성과 보여"

이목희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4일 "일지리를 늘리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이제 일정 부분 성과를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일자리위원



회 11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작년 취업자 수는 월평균 약 9.7만명 증가에 그쳤던 반면, 올해 취업자 수 증가는 2월 26만명, 3월 25만명, 4월 17만명으로 작년보다 고용상황이 다소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2019년 취업자 수 증가가 월평균 약 2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고용상황의 긍정적 변화들도 전망되

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그럼에도 자영업·제조업 분야와 40대 고용상황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 또한, 청년들도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다"며 "더욱더 노력하겠다. 수립된 민간·공공 일자리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철저히 이행점검하는 한편, 새롭고 창의적인 일자리 정책개발에도 더욱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공공 고용서비스 발전"을 통해 촘촘한 일자리 안전망을 마련해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틀을 다졌다고 말했다. /뉴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나라사랑 잊지 말자"

전북도, 다양한 보훈행사 개최

6월 호국 보훈의 달과 제64회 현충일을 맞이하여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기억하고 추모하며, 호국보훈의 마음을 다짐하는 다양한 행사가 전북도 전역에서 개최된다.

먼저, 내일 오전 9시 55분에는 국립임실호국원 현충탑 앞 광장에서 국가유공자 및 보훈유가족, 보훈단체장, 기관 단체장, 시민 등 2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기억, 추모하는 제64회 현충일 추념식이 열릴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현화·분향, 추모헌시 낭독, 추모곡 독창, 추념사, 현충의 노래 제창순으로 진행하며, 순국선열의 희생에 감사와 존경을 다하는 행사가 펼쳐진다.

특히, 송하진 도지사는 총령당 및 묘역을 순례하며 참배하러 온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임실군 내 어려운 보훈가족을 방문하여 격려하고 '국가유공자 명패'를 달아드리 는 행사를 통해 공헌과 희생에 대한 예우와 존경을 표시할 예정이다.

또한, 이날 도내 14개 시·군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주관으로 군경묘지 및 현충탑 등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민족의식 고취와 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한 현충일 추념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 밖에도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넋을 기리는 경건한 추모 분위기 조성 과 나라사랑의 정신을 함양하고,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희생과 따뜻한 보훈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6월 1일, 전주 완산공원 동화

농민혁명 녹두관에서 이름없는 '동학농민군 지도자의 유골 안치'를 시작으로 국내외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6·25 제69주년 기념 행사',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영령들을 위한 '호국영령함동추모제', '6.25 사진전시회' 등이 6월중 전주일원에서 개최되며, 전북일보가 주관하는 '제45회 전북보훈대상 시상' 지원 및 6·25참전유공자의 가정을 방문 격려하고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행사도 가질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각 가정과 직장에서 조기를 계양하는데 동참하고, 6월 6일 오전 10시 정각에 전국적으로 울리는 사이렌에 맞추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비는 묵념을 실시하는 등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 보기를 기대한다"며 도민들의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